

기드온, 입다, 삼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사 그 사사가 있는 날
동안에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더라.”*

사사기 2:18

여호수아 사후 수 세기 동안 이스라엘에는 명확한 정부 체제가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사람들은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민수기 33:52-56; 사사기 21:25). 대체로 불의와 거짓 신 숭배의 흐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의 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원수들에게 압제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사기 2:13-15).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사사들을 세우셨다." (16절). 이 글에서는 세 명의

신실한 사사—기드온, 입다, 삼손—의 삶을 살펴보겠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였다. 처음 등장할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려 하고 있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해 왔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용맹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사기 6:11,12). 기드온의 천사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거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와도 함께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말했던 그 기적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13절

이 대답이 반드시 기드온이 천사의 주장을 의심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마도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그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적을 행하여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그러할 것임을 확신받고 싶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 기드온에게 대답하셨다: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확신은 기드온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는 대답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난한 자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14,15절

여기서 기드온은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사용하신 모든 이들이 지닌 특징적인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고, 분명히 기드온은 가족 안에서 자신이 별 중요성이 없다고 느끼게 될 만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백성의 구원자로 택하셨을 때 그가 놀라고 주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처럼 쳐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사사기 6:16).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확언하실 때, 가장 겸손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믿는다면 용감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믿음은 강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자신과 대화하시는 분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표적을 보여 주소서.” 17절

기드온이 여호와와 천사에게 "제가 가서 예물을 가져다가 당신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떠나지 말아 달라고 청하니, 천사가 머물겠다고 약속하였다. "기드온이 들어가 어린 염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파로 만든 무교병을 준비하였다.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솥에 담아 참나무 아래로 가져와 그 앞에 바쳤다." (18,19절).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그가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만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삼켰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니라." 20,21절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한 권능의 기적적인 현현과 하늘 사자의 갑작스러운 소멸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와 대화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아, 여호와 하나님이어!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보았사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네게 있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22,23절

바알 숭배의 파괴

이제 기드온은 여호와와 축복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으므로,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 이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는 그 땅에서 바알 숭배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드온에게 엄중한 시험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친아버지가 이 이방 숭배를 위한 제단을 세웠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의 송아지 곧 일곱 살 된 두 번째 송아지를 취하여 네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스다롯 나무를 찍어 버리라 이 바위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네가 베어 낸 아세라 나무로
번제물을 드리라.” 사사기 6:25,26

기드온은 이 지시를 실행했다. 그는 열 명의 종을
동원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는 밤중에 지시를 실행했는데, 이는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일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바알 숭배자들의 격렬한 반응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드온이 그 책임자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가 죽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7-30절

그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 요구를 했다.
그러나 요아스는 비록 아들이 파괴한 바알의 제단과
아스다롯 신전을 세운 자였으나, 기드온의 목숨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는
바알을 변호하겠느냐? 그를 구원하겠느냐? 그를
변호하는 자가 있다면, 아침이 되기 전에 죽임을

당하게 하라. 그가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무너뜨린 자를 변호하게 하라." 사사기 6:31

요아스는 바알이 자신의 제단이 파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명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동정심은 지혜롭게 기드온 쪽으로 기울어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점점 커져 갔다. “그 날에” 요아스는 아들을 “여룹바알[히브리어: 바알이 다투게 하라]이라 부르며 말하되, 그가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하게 하라”고 했다. 32절

군대가 모이다

즉각적인 위기가 발생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자손들이 모두 모여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러나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는 나팔을 불자,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는 또한 사자들을 보내어 "마나세 온 땅에 전파하니, 그들도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도 사자들을 보내니, 그들이 올라와 그들을 만나러 왔다." (33-35절). 일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지휘를 따를 준비가 된 군대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여겨졌던 그에게 이는 상당히 압도적인 사건의 전개였을 것이다. 그가 주님께로부터 더 큰 확신을 필요로 느낀 것도 당연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뜰에 양털 한 뭉치를 놓으리이다. 이슬이 오직 그 양털에만 내리고 그 주위 땅은 모두 마른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나이다." (36,37절).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참으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양털을 살펴보니 완전히 젖어 있었고, 기록에 따르면 “물 한 그릇을 가득 담을 만큼”이었으며, 그 주변 땅은 마른 상태였다. 이로써 충분히 확신했어야 했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조건을 바꿔 두 번째 시험에서 주님께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요구를 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말하였다. “주께서 내게 진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겠나이다.” 다시 주님께서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양털 위만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내렸기 때문이었다.” (39,40절).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기에 살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고 수년간 적들에게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을 만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찰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낸 모세처럼, 기드온도 자신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 자신감의 결핍이 주님께서 기드온을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치려 하신 또 다른 교훈이 있었으니, 그것은 숫자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은 군대()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기에는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셨다(). “네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줄 수 없노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며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도다’ 할까 두려우니라.” 사사기 7:2

기드온의 지휘를 받기로 한 자원군 원병의 원래 규모는 삼만 이천 명이였다.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그는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백성 중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3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해 그들을 가려내리라.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면 갈 것이요,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면 가지 않을 것이다." (4절)

시험은 간단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는 것이었다. 만 명 중 오직 삼백 명만이 "손을 입에 대고" 물을 핥아 마셨으며, 이로써 마시는 동안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삼백 명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로 이끌게 될 전 군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5-7절

더욱 굳건해진 믿음

이스라엘의 적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기드온은 분명히, 것처럼 막강한 무장 세력을 고작 삼백 명의 병사로 무찌를 수 있다는 확신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그의 종 푸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진으로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지시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들을 내용이 후에 있을 공격에 대한 용기를 줄 것이라고 하셨다. 9-11절

미디안 군대 진영을 방문한 것은 밤중에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보초들에게 들키지 않았다.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라고 그가 말하길, 보리 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갔는데, 그 힘이 너무 세서 천막을 쳐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렸다." 친구가 대답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아니면 다른 무엇일 수 없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과 온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소." (13,14절) 이 꿈과 그 해석을 우연히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로 택하신 삼백 명의 작은 무리가 실제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서 그는 말했다.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가라.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15절)

기드온의 삼백 명 병사들은 무기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 각자에게 나팔과 흙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넣을 등불이나 횃불을 주었다.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군대도 이와 같은 장비로 무장한 적은 없을 것이다. 기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드온의 전투 방식과 공격 계획이 주님의 지시에 따른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드온은 병사들에게 무기를 지급한 후, 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아래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 군대를 둘러싼 언덕 양옆에 배치했다. 기드온은 소규모 부대 중 하나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사사기 7:16

그는 모두에게 자신이 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나팔을 불면 그들도 나팔을 불어야 했다. 동시에 그들은 횃불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항아리를 깨뜨려야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와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로다"라고 외쳐야 했다(17,18절). 이전에 동료의 꿈을 해석했던 미디안 사람은 "이것은 기드온의 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 꿈과 그 해석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의 삼백 용사들의 함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략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었던 듯하다. 비록 그의 군대는 소규모였지만, 그는 그들을 미디안 진영을 사실상 포위하는 방식으로 배치했다. 보통 군대의 지휘관들만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텐데, 미디안 사람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삼백 개의 나팔 소리와 흔들리는 삼백 개의 횃불을 보게 되면, 엄청난 군대에 공격받는다라는 인상을 확실히 받았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전략을 '심리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삼백 명이 모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칼과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자, 적군 진영에 공포와 패닉이 퍼져 나갔다. "여호와께서 온 군대 가운데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향해 칼을 들게 하셨다"(19-22절).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격하여 마침내 그들의 지도자들과 왕들을 사로잡아 죽였다(사사기 7:23-25; 8:1-21). 이스라엘의 승리는 완전했다.

기드온은 성경에서 가장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유능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주님의 천사가 처음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지만, 자신의 작은 군대에게 이것을 전투 구호로 사용하라고 지시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 먼저 두었다: "여호와와 칼과 기드온의 칼."

그의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되,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라. 네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나 여기서도 기드온의 겸손과 올바른 관점이 드러난다. 그는 이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8:22,23).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사는 다시 한번 백성 앞에 주님을 두며, 오직 그분께 순종할 때에만 자유롭고 번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드온의 본보기와 신실한 재판관직의 결과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만 지속되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서서 바알들을 좇아 음란하게 행하며 바알벨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방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룹바알 곧 기드온의 집에도 그가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8:33-35

입다와 그의 딸

기드온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악을 행한 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도록 여러 사사들을 세우셨으나, 길르앗의 아들 샷파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입다에 대해서는 용맹한 용사로 소개되지만, 그는 "낮선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여 "형제들을 피해 도브 땅에 거주하였다." 사사기 11:1-3

입다의 지도자적 능력과 군사적 재능은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겨지던 자들조차도 분명히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심히 압제받게 되자,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며, 그가 암몬 자손을 물리친 후에는 그에게 나라의 지도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입다는

마지못해 수락했고, 주님의 축복이 임했던 이전의 다른 장군들처럼 승리했다. 4-32절

그러나 샷파의 이름이 성서에 두드러지게 기록된 이유는 그의 군사적 전문성 때문이 아니라, 신의 도움으로 주어질 승리를 예상하며 주님께 한 서원 때문이다. 그 서원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었다. 30,31절

입다의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어린 딸, 외동딸이 집에서 나와 그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그녀를 보자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완전히 망쳐 놓았구나! 네가 내게 재앙을 불러왔구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바가 있으니, 이를 돌이킬 수 없느니라.'" (34-35절)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기록했습니다(전도서 5:4,5). 입다도 이 관점을 지녔습니다. 비록 그의 서원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그렇게 엄숙한 의무를 지게 된 이상 그는 이를 바꿀 방법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딸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고 단지 두 달의 시간을 청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내가 산에 올라가서 처녀됨을 슬퍼하며 내 친구들과 함께 울게 하소서"라고 했다. 샷대야는 이 청을 허락했다. 두 달이 지난 후 "그녀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니, 샷대야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1:36-39

일반적으로 여파가 실제로 자신의 딸을 소나 염소처럼 제물로 바쳤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성경 기록을 대충 읽어보면 이 관점을 지지하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 성경 번역본에서 40절을 해석한 방식은 다른 생각을 제시하는 듯하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길르앗 사람 여파의 딸에게 가서 일 년에 사흘 동안 이야기하러 갔다"고 설명한다.

39절은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매년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파의 딸이 살아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소녀가 평생 처녀로 남았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인들의 관점에서 이는 아버지가 딸에게 요구한 엄청난 희생이었다.

이 생각은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입다(Jephthah)가 자신의 입장을 딸에게 설명했을 때, 그녀가 두 달의 유예를 요청한 것은 일부 주석가들이 설명하듯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처녀성을 애도하기 위함이었다. (사사기 11:37). 그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을" 때,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여호와와의 영"에 이끌린 자였다(29절). 그러므로 그는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된 행위였기 때문이다. 신명기 12:29-31

암몬 족속을 물리친 후, 입다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에브라임 자손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했다. 그들의 반란은 주로 입다가 암몬 족속 정복에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고, 입다는 그들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다. 삿대야의 생애에 관해 기록된 것은 그뿐이다. 다만 그가 사사로 재임한 기간이 6년이었고, 그가 죽었다는 것뿐이다. 사사기 12:1-7

강한 자 삼손

입다 사후에도 여러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으나, 기록에 간략히 언급될 뿐이다.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사사는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으로 인해 그가

사사로 세워졌다. 그 벌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사사기 13:1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때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는 아직 천사로 인식되지 않은 이 방문자를 자신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받아들여졌고, 천사와의 대화 중에 마노아는 바위 위에서 어린 염소를 제물로 바쳤다. 그 염소가 불타오르자 천사는 불꽃 속에서 그들로부터 올라갔다. 그제서야 그들은 천사가 찾아왔음을 깨달았고, 그들에게 태어날 아들 이 이스라엘에게 지니는 중대한 의미를 깊이 새겼다. 천사가 설명했듯이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자였다. 2-24절

주님의 지시에 따라 삼손은 어릴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그의 부모는 그가 평생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지시받았기 때문이다. 민수기 6:1-21에

기록된 유대 율법의 조건에 따르면, 나실인은 제한된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주님의 섬김에 전념하는 자였다. 나실인의 외적 특징 중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었다.

삼손은 엄청난 힘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개인적인 삶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충실했기에, 히브리서에서 기드온과 입다와 함께 고대의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으로 언급된다. 히브리서 11:32

삼손은 결혼한 상태였으나, 어느 날 "델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사사기 16:4). 그녀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비밀을 델릴라에게 털어놓았다(15-17절).

삼손의 머리카락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그가 잠든 틈을 타 한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다. 아마도 삼손이 들릴라와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서약을 어기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머리카락이 사라지자 주님은 그에게서 힘을
거두셨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두었다. 19-21절

삼손이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혀 왔기에, 그들은 이제 그를
제압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놋쇠 족쇄로 그를 묶어
두었습니다. 이 강력한 삼손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블레셋의 귀족들이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23,24절

이 모임은 그들의 이방 신전 안에서 열렸으며, 대단한
집회였다.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고, 블레셋의 모든
귀족들이 거기에 있었으며, 지붕 위에는 삼손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려는 남녀 약 삼천 명이
있었다"(25-27절). 위대한 삼손에게 얼마나 큰
굴욕이었는가!

상황은 곧 바뀌었다. 삼손의 믿음이 구원자가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자,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건물 지붕을 지탱하던 두 기둥 사이에 몸을 고정시킨 그는 그 기둥들을 밀어 떼어냈고, "그 집이 그 귀족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 때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22,28-30절

여기서도 우리는 블레셋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힘이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삼손의 모든 힘의 업적은 여리고 성벽의 붕괴나 홍해 갈라짐과 마찬가지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한 사람을 통해 그 힘을 나타내 보이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다만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임을 알 수 있다.

미래의 심판자들

그 미래의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와 그 시대의 신실한 추종자들이 심판자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 17:31; 고린도전서 6:2). 이스라엘이 신성한 법에 불순종하여 원수들에게 속박을 당한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죄와 죽음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중대한 책임을 위해 미리 준비된 이 재판관들을 세우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 기꺼이 순종하는 모든 인류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전망입니다!